

5세 자녀를 둔 성남시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이경희 · 신명미¹ · 허성윤² · 안용순³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¹신구대학 치위생과, ²신구대학 치기공과, ³서울보건대학 치위생과

색인: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위, 모친

1. 서 론

인간의 행복요건에는 의식주와 함께 건강이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구강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¹⁾.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악안면구강조직기관의 상태를 말하며²⁾, 구강건강의 향상에는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수준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성장, 마스크의 발달, 치과 의료의 증가 및 의료보험제도 등으로 인하여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구강보건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구강건강행위는 개인,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터전이며 구강건강 측면에서도 공공구강보건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서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을 보살피는 특수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구강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³⁻⁵⁾. 어머니는 자녀를 가진 여성을 지칭하며 임신과 출산 등의 생물학적 변화과정과 가사와 육아라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어머니의 구강보건인식 및 행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모친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로는 Chen과 tatsuka⁶⁾가 구강건강신념모형을 사용하여 구강건강신념과 구강병예방행위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바 있고, Freeman과 Lambert⁷⁾는 모친의 예방행위와 소득, 교육, 직업과는 상관성이 있으나 예방목적의 방문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태도, 행위, 건강신념 등이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미치는 영향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모친 자신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

정이다⁸⁻⁹⁾. 또한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어머니의 영향이 심대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아동의 구강보건행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도 어머니 자신의 구강보건의식 및 행태를 구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논리적으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성남시의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에 거주하는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878명을 대상으로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인원분포는 표 1과 같았다.

2.2 연구방법과 내용

설문조사법을 사용하여 설문지에 자가기입하게 하였으며, 설문내용으로는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어머니의 구강보건행위, 구강보건지식, 태도 및 행위, 자가 구강건강평가 등과 관련된 문항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 구별로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 분포

성남시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878	320	282	276

3. 연구 성적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평균연령은 약 34세이고,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68.0%로 가장 많았다. 취업상태는 전업주부가 43.5%로 가장 많았고, 전일제 취업한 경우가 29.3%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학졸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인 경우가 41.8%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250만원 이상이 38.2%로 가장 많았고, 200~250만원의 경우가 23.1%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당구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경우가 교육정도와 가구소득에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3.2 어머니의 구강보건행위와 관련된 물음

어머니의 구강보건행위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 이내에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44.9%였으며, 1~2년이 20.6%로 나타났다. 예방을 목적으로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23.3%, 그렇지 않은 경우가 73.3%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은 있는 경우가 56.1%로 나타났으며, 학창시절 교육이 가장 많았고, 없는 경우가 34.2%로 나타났다. 스케일링에 대한 경험은 있는 경우가 69.0%로 나타났으며, 없는 경우가 27.2%로 나타났다(표 3).

3.3 구강보건지식과 관련된 물음

조사대상의 구강보건지식과 관련하여 총 10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 : %)

구분		응답자율(응답자수)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연령 (평균)	평균	33.93±3.75	33.97±3.92	33.73±3.67	34.09±3.63
	21~34세	62.2(546)	62.2	64.2	60.1
	35~50세	37.8(332)	37.8	35.8	39.9
자녀수	1명	17.2(151)	15.6	13.8	22.5
	2명	68.0(597)	66.6	68.1	69.6
	3명 이상	14.8(130)	17.8	18.1	8.0
취업상태	전일제 취업	29.3(257)	36.3	31.2	19.2
	시간제 취업	11.2(98)	13.8	11.0	8.3
	부업	6.0(53)	5.0	7.4	5.8
	전업주부	43.5(382)	34.1	38.7	59.4
	기타	6.9(61)	8.1	8.2	4.3
	무응답	3.1(27)	2.8	3.5	2.9
교육정도	고졸 미만	3.9(34)	4.7	6.0	0.7
	고졸	41.8(367)	53.1	57.1	13.0
	(전문)대학졸	48.5(426)	38.1	33.3	76.1
	대학원졸	3.3(29)	1.6	0.4	8.3
	무응답	2.5(22)	2.5	3.2	1.8
가구소득	50만원 이하	1.1(10)	1.3	1.4	0.7
	50~100만원	3.3(29)	3.4	5.7	0.7
	100~150만원	10.8(95)	13.4	15.6	2.9
	150~200만원	18.3(161)	20.9	25.9	7.6
	200~250만원	23.1(203)	24.1	22.0	23.2
	250만원 초과	38.2(335)	31.9	23.8	60.1
	무응답	5.1(45)	5.0	5.7	4.7

가지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정답률은 6.95개로 나타났다. 설탕 등 단음식의 섭취가 충치를 유발한다는 문항이 91.7%로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흡연은 구강건강과 관련없다는 문항에서 84.5%가 옳지 않다고 응답하여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치아는 나이가 들에 따라 노화작용으로 빠진다는 문항에서는 31.6%만이 옳지 않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수돗물불소화법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충치예방법이라는

문항에서는 39.3%가 옳다고 응답하여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다(표 4). 또한 상대적으로 분당구 거주 어머니의 지식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5).

3.4 구강보건태도와 관련된 물음

조사대상의 구강보건태도와 관련하여 총 10가지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태도수준은 7.33개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낀다는 문항에서 87.1%가

표 3. 어머니의 구강보건행위와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

구분		응답자율(응답자수)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구강진료기관	6개월 이하	23.9(210)	21.3	28.0	22.8
최근방문시기	6개월~1년	21.0(184)	20.9	19.5	22.5
	1~2년	20.6(181)	18.8	18.8	24.6
	2~5년	13.4(118)	13.1	11.3	15.9
	5년 이상	5.2(46)	5.6	5.3	4.7
	이용한 적 없음	12.0(105)	16.6	13.1	5.4
	무응답	3.9(34)	3.8	3.9	4.0
예방(검진)목적	있음	23.3(205)	21.9	24.1	24.3
치과병의원	없음	73.3(644)	74.7	72.3	72.8
방문경험	무응답	3.3(29)	3.4	3.5	2.9
구강보건교육경험	개별교육	24.7(217)	26.9	22.3	24.6
	집단교육	1.4(12)	0.9	1.8	1.4
	학창시절 교육	30.0(263)	27.2	31.2	31.9
	없음	34.2(300)	35.0	34.0	33.0
	기타	4.7(41)	4.7	5.7	3.6
	무응답	5.1(45)	5.3	5.0	5.1
스케일링경험	있음	69.0(606)	64.7	65.6	77.5
	없음	27.2(239)	30.3	31.2	19.6
	무응답	3.8(33)	5.0	3.2	2.9

표 4. 구강보건지식에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

문항	응답자율(%)					
	확실히 맞음	맞음	틀림	확실히 틀림	모르 겠음	무응답
1. 충치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25.5	57.7	6.2	1.0	3.9	5.7
2. 설탕 등 단음식의 섭취가 충치를 유발한다	37.9	53.8	2.7	0.2	0.8	4.6
3. 유치에 충치가 있으면 영구치에도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22.8	50.6	11.8	0.8	9.1	4.9
4.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이용해야 한다	24.6	57.4	3.0	0.7	9.6	4.8
5. 수돗물불소화법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충치예방방법이다	6.4	32.9	15.1	2.5	37.6	5.5
6. 잇몸병은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15.3	59.0	7.7	1.1	11.6	5.2
7. 잇몸병으로 부어있는 부위에는 잇솔질은 하지 않는다	4.1	30.0	34.6	6.2	19.8	5.4
8. 스케일링(치석제거)에 의해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	1.5	20.8	45.3	14.6	13.3	4.4
9. 흡연은 구강건강과 상관없다	1.9	4.7	53.6	30.9	3.9	5.0
10. 치아는 나이가 들에 따라 노화작용으로 빠진다	6.8	42.8	27.3	4.3	13.9	4.8

* 올바른 지식에 해당하는 난을 음영으로 표시함

표 5. 구강보건지식 수준*

(단위 : 명, 개)

구분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응답자 수**	798	286	256	256
평균점수±표준편차	6.95±1.56	6.90±1.57	6.79±1.52	7.17±1.57

* 10개 문항에 대한 정답 갯수로 계산되며, 10점이 만점임

** 한 개의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숫자임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태도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충치예방을 위하여 불소가 배합된 치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 82.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높은 태도수준을 보였다. 치약없이도 치아를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서는 24.0%만이 그렇다

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태도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치통이 생기기 전까지 치과를 가지 않는다는 문항에서는 43.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낮은 태도수준을 보였다<표 6>. 또한 상대적으로 분당구 거주 어머니의 태도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7>.

표 6. 구강보건태도와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

문항	응답자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모르겠음	무응답
1. 치통이 생기기 전까지 치과를 가지 않는다	4.3	47.3	36.2	7.7	0.7	3.8
2. 충치를 질병으로 실제 생각지 않는다	1.0	13.2	62.3	18.6	1.0	3.9
3. 잇몸병은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한다	15.5	63.9	13.1	0.6	2.3	4.7
4. 치아표면의 세균막(프라그)을 제거하기 위해 잇솔질을 한다	10.6	63.1	16.4	1.0	4.6	4.3
5.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낀다	31.7	55.4	6.9	0.6	0.8	4.7
6. 충치예방을 위하여 불소가 배합된 치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7	61.7	9.2	0.2	4.6	3.5
7. 치약없이도 치아를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	23.0	55.8	10.7	5.8	3.6
8. 너무 바빠서 치과에 가기 힘들다고 느낀다	1.4	25.9	55.7	12.2	0.9	4.0
9.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16.7	70.4	6.3	0.8	1.9	3.9
10. 여러 건강문제들 가운데, 충치 혹은 잇몸병 등의 구강건강 문제가 다른 어떤 건강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9.8	57.2	16.4	0.0	2.7	3.9

* 바람직한 태도에 해당하는 난을 음영으로 표시함

표 7. 구강보건태도 수준*

(단위 : 명, 개)

구분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응답자 수**	815	301	260	254
평균점수±표준편차	7.33±1.49	7.26±1.53	7.33±1.55	7.40±1.36

* 10개 문항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의 갯수로 계산되며, 10점이 만점임

** 한 개의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숫자임

3.5 구강보건행위와 관련된 물음

조사대상의 구강보건행위와 관련하여 총 10가지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행위수준은 5.37개로 나타났다.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한다는 문항이 89.9%로 가장 높은 행위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잇솔질을 할 때, 치아와 경계부위를 깊게 닦는다는 문항에서는 78.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높은 행위수준을 보였다.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한다는 문항에서는 15.8%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행위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구강병 예방을 위해 치실 혹은 치간칫솔을 사용한다는 문항에서는 30.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낮은 행위수준을 보였다(표 8). 또한 상대적으로 분당

구 거주 어머니의 행위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9).

3.6 자가 구강건강평가 등과 관련된 물음

조사대상의 자가 구강보건평가 등과 관련하여 총 10가지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평가수준은 6.77개로 나타났다. 현재 치통으로 인하여 고통스럽다는 문항에서는 90.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평가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뼈뿔뼈뿔한 치아로 인해 웃을 때 조심한다는 문항에서 83.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높은 평가수준을 보였다. 나의 구강건강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좋다는 문항에서는 38.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표 8. 구강보건행위와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

문항	응답자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모르겠음	무응답
1. 잇솔질을 할 때, 치아와 잇몸 경계부위를 깊게 닦는다	11.5	67.2	17.3	0.1	0.3	3.5
2. 잇솔질을 할 때, 순서를 정해서 치아 하나 하나를 주의 깊게 닦는다	6.2	36.3	52.1	0.8	1.1	3.5
3.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한다	25.7	64.2	5.7	0.2	0.2	3.9
4. 구강병 예방을 위해 치실 혹은 치간칫솔을 사용한다	5.7	24.6	56.9	6.5	1.9	4.3
5.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한다	3.2	12.6	69.8	10.3	0.6	3.5
6. 성분을 확인하고서 치약을 구입한다.	5.4	39.6	47.0	4.0	0.6	3.4
7. 2-3달에 한번씩 칫솔을 교체한다.	16.5	64.8	14.0	1.0	0.1	3.5
8. 잇솔질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3.1	54.8	31.7	5.7	1.0	3.8
9. 잇솔질 후 거울을 통해 치아상태를 확인한다	5.9	50.3	36.8	2.5	0.8	3.6
10. 잇몸색 등을 관찰하여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한다	4.2	37.2	49.7	2.8	2.3	3.8

* 바람직한 행동에 해당하는 난을 음영으로 표시함

표 9. 구강보건행위 수준*

(단위 : 명, 개)

구분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응답자 수**	828	304	263	261
평균점수±표준편차	5.37±1.99	5.28±2.03	5.33±1.94	5.52±2.01

* 10개 문항에 대한 바람직한 행위의 갯수로 계산되며, 10점이 만점임

** 한 개의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숫자임

가장 낮은 평가수준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낀다의 문항에서 41.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낮은 평가수준을 보였다(표 10). 또한 상대적으로 분당구 거주 어머니의 평가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표 11).

4. 중괄 및 고안

인간의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성인의 구강질환이나 구강관리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¹⁰⁾. 성인집단에서는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질환 등 필수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결혼한 여성

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피임 등의 특수한 생리적인 기능을 지니고, 가족의 구강건강을 돌보는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건강보다는 가족의 구강건강이 우선시 되는 등, 사회적 역할에 의한 모친만의 특수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는 아동의 구강건강관리 및 치과의료이용에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의 구강보건 의식 및 행태가 자신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다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어머니의 구강보건 의식과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의 일환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10. 자가 구강건강평가 등과 관련된 조사결과

(단위 : %)

문항	응답자율(%)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모르 겠음	무응답
1. 잇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1.4	24.3	61.3	8.3	0.6	4.2
2. 입냄새로 인해 대화할 때 주의한다	0.9	29.3	55.8	8.0	1.8	4.2
3. 딱딱한 음식을 씹기 어렵다	1.1	19.7	64.5	10.3	0.0	4.4
4.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기가 힘들다	1.5	23.1	61.8	8.7	0.6	4.3
5. 빠듯빠듯한 치아로 인해 웃을 때 조심한다	0.6	11.6	66.1	17.0	0.3	4.4
6. 현재 치통으로 인하여 고통스럽다	0.3	4.8	68.9	21.1	0.7	4.2
7.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낀다	4.3	48.2	38.3	3.6	1.3	4.3
8. 나는 비교적 치아를 깨끗이 관리하고 있다	3.3	61.0	25.7	0.8	4.8	4.3
9. 나는 노인이 되면 틀니를 하게 될 것이다	0.8	18.9	45.4	7.1	22.9	4.9
10. 나의 구강건강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좋다	3.2	34.9	42.1	2.4	13.0	4.4

* 바람직한 평가에 해당하는 난을 음영으로 표시함

표 11. 자가 구강보건평가 수준*

(단위 : 명, 개)

구분	전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응답자 수**	839	302	267	270
평균점수±표준편차	6.77±2.09	6.77±2.12	6.66±2.16	6.89±1.98

* 10개 문항에 대한 바람직한 답변의 갯수로 계산되며, 10점이 만점임

** 한 개의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숫자임

최근 1년 이내에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는 44.9%로 안 등¹¹⁾의 45.0%와 거의 유사했다. 구강병을 조기 발견하고 초기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주기로 정기구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의료보험요양급여에 1년 또는 2년 마다의 정기구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기구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예방을 목적으로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23.3%, 그렇지 않은 경우가 76.5%로 나타나 치료를 목적으로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예방적 원칙에서 볼 때, 예방진료가 보철 등의 진료에 비해 경제적 부담도 적고 효율도 큰 만큼, 추후 구강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은 있는 경우가 56.1%로 나타났으며, 그 형태로는 학창시절 교육이 가장 많았고, 구강보건교육 경험이 없는 어머니도 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구강건강수준은 구강보전에 관한 지식과 태도 및 행위를 변화시켜야만 향상되고, 이들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¹²⁾.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구강보건교육의 대상은 대부분이 4~6세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보다 넓은 층에게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스케일링에 대한 경험은 있는 경우가 69.0%로 나타났다. 1995년도 국민건강조사자료에서는 35~44세 여성의 73.0%가 즉시 스케일링 이상의 치주질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¹³⁾. 또한 스케일링은 이미 발생된 치주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데 더 유용하다. 따라서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차원에서도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일링을 한번 이상이라도 경험한 경우가 69.0%에 그쳐,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구강보건지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치아우식 유발식품에 관하여 91.7%의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며, 치아는 나이가 들에 따라 노화작용으로 빠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로 가장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박¹⁴⁾은 치아상실의 원인의 46.43%가 치아우식증이고, 38.1%가 치주질환이며, 11.90%가 기타 구강질환에 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노화작용에 의하여 치아상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므로 치아상실이 증가하는 것이나 이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경우가 68.4%로 나타나, 교육을 통한 지식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80% 이상의 어머니가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수돗물불소화법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충치예방법이란 항목에는 약 40%만이 동의하고, 약 38%의 어머니가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안전성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소가 함유된 치약 및 세정제 등은 거부감없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수돗물불소화에 대해서는 일부 환경론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로 인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경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과학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강보건교육이 앞으로 성남시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진척을 위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흡연과 구강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항에서 85% 이상의 어머니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여 금연교육내용에 구강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인 설득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구강보전태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잠자기 전에 잇솔질에 대해서는 87.1%의 높은 태도수준을 보였으며, 치약없이도 치아를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4.0%로 가장 낮은 태도수준을 보였다. 치면세균막은 구강내 세균의 집합체로서 치은염,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의 주요원인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치약을 이용한 잇솔질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불소가 배합된 세치제로 잇솔질을 하면 약 15~30%의 치아우식증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¹⁵⁾, 김¹⁶⁾과 박¹⁷⁾은 치약과 칫솔로 올바른 칫솔질을 하여 치아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치약은 구강청결에 필수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불소함유 세치제의 효과를 감안할 때, 불소함유 세치제의 사용은 권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치아를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응답률이 87%에 이르고, 약 77%가 구강건강문제가 다른 어떤 건강문제보다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구강건강에 대한 걱정과 강한 구강보전교육 욕구를 보이며, 전체 어머니의 구강보전태도 수준이 구강보전지식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어머니들의 태도를 적극 활용하면 어머니들의 구강보전지식과 구강보전행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강보전행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잠자기 전에 잇솔질에 대해서는 89.9%로 높은 행위수준을 보였으나,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15.8%로 가장 낮은 행위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구강병 예방을 위해 치실 혹은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경우가 30.3%로 낮은 행위수준을 보였다. 치면세균막을 조절하는데 있어서는 잇솔질이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화된 방법이나, 잇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인접면 등은 치실이나 치간칫솔 등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구강위생용품 활용에 대한 지식 보완과 태도 및 행위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또한 전체 어머니의 구강보전행위 수준이 태도와 지식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구강보전지식과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식과 태도를 구강건강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강보전행위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이것을 위해서는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보건소가 주축이 된 주부 구강건강교실 운영 등과 같은 방안이 유효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강건강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한 결과, 현재 치통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의 구강건강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의 구강건강에 대한 평가에 다소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고,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고 약 20~30%의 어머니가 잇솔질시 잇몸출혈과 입냄새, 그리고 저작시의 불편을 호소하였고, 특히 절반 이상의 어머니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낀다고 응답하였고, 앞의 구강보전행위에서 치실 혹은 치간칫솔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0%에 불과한 것과도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자가 구강관리능력 배양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구강보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및 태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적절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앞으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지역보건소와 주민자치센터 등이 연계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5. 결 론

저자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해 조사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최근 1년 이내에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는 44.9%였으며, 예방을 목적으로 구강진료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23.3%로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경험은 56.1%가 있다고 응답했고, 교육수용 경로는 학창시절 교육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스케일링에 대한 경험은 69.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강보건지식을 살펴본 결과, 10개의 문항에서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응답률은 6.95개로 나타났고, 문항별로는 설탕 등 단음식의 섭취가 충치를 유발한다고 91.7%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지식수준을 보였으며, 치아는 나이가 들에 따라 노화작용으로 빠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로 가장 낮은 지식수준을 보였다.
3. 구강보건태도를 살펴본 결과, 10개의 문항에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응답률은 7.33개로 나타났고, 문항별로는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낀다고 87.1%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태도수준을 보였으며, 치약 없이도 치아를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4.0%로 가장 낮은 태도수준을 보였다.

4. 구강보건행위를 살펴본 결과, 10개의 문항에서 바람직한 행위에 대한 응답률은 5.37개로 나타났고, 문항별로는 89.9%가 잠자기 전에 잇솔질을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행위수준을 보였으며,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5.8%로 가장 낮은 행위수준을 보였다.
5. 자가 구강보건평가를 살펴본 결과, 10개의 문항에서 올바른 평가에 대한 응답률은 6.77개로 나타났고, 90.0%가 현재 치통으로 인하여 고통스럽지 않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으며, 자신의 구강건강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38.1%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참고문헌

1. 남철현, 이시백, 전병훈, 최상범. 바른건강생활. 보건사회부 1982:69-90.
2. 김종배, 최유진. 공중구강보건학. 6판. 고문사, 2000:10.
3. 서일, 권호근, 최연희, 지선하.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9;23(1):45-61.
4. 진보형, 김영수. 우리나라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구강보건교육자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26(3):397-404.
5. 조미영. 지역사회 고등학생들의 구강보건실태 및 행위에 관한 조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6. Chen Ms, Tatsuoka M.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 women's preventive dental behavior and dental health beliefs. Soc Sci Med 1984;(19)9:971-978.
7. Freeman HE, Lambert C. Preventive dental behavior of urban mothers. J Health Human Behavior 1965;6:141-147.
8. 최연희, 서일, 권호근, 지선하.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 상태와의 연관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9;23(1):45-57.
9. 이홍수. 모친의 구강보건행태와 사회 경제적 요인이 아동의 치과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21(1):87-105.
10. 김인숙 외 공저. 구강보건교육학. 고문사, 2002:56.
11. 안용순, 김은숙, 임도선, 정세환, 이홍재. 성남시 어린이집 원아 어머니의 구강보건 의식과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구강건강증진학회지 2000;1(1):83-94.
12. 진보형, 김영수. 우리나라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구강보건교육자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2;26(3):397-404.
13. 1995년 국민구강건강조사보고. 국민구강보건연구소 1997.
14. 박광진. 치아상실 원인의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80;5(1):52-54.
15. 김종배, 최유진, 백대일 외 4인. 예방치학. 고문사, 1999:139-140.
16. 김주환, 김준환, 유광희, 최유진.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70;12(10).
17. 박광진. 치아우식활성에 대한 Toothbrushing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970;11(9).

Abstract

A Study on the Outlook of Mothers with Five-Year-Old Children in the City of Seongnam on Dental Health and Their Relevant Behavior

Kyung-Hee Lee*, Myung-Mi Shin¹,
Sung-Yun Heo² and Yong-Soon Ahn³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Iksan-City 570-750, Korea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Gu college, Joongwon-Gu, Seongnam City, Kyungki-Do 462-743, Korea*

²*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Gu college, Joongwon-Gu, Seongnam City, Kyungki-Do 462-743, Korea*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eoul Health college, Soojung-Gu, Seongnam City, Kyungki-Do 461-713, Korea*

Key words: mother, outlook on dental health, dental health behavi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others' perception of dental health and their relevant behavior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878 mothers who had five-year-old children in the city of Seongnam.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ir dental health awareness and behavior, the following findings were acquired:

1. 44.9 percent of the mothers investigated ever paid a visit to dental institutes over the last year, and 23.3 percent visited them to prevent any possible dental diseases. 56.1 percent ever received oral health education, and 30.0 percent, the largest group, received that in their school days. 69.0 percent ever had their teeth scaled.
2. As for their oral health knowledge, the right answer rate was 6.95 out of 10. Concerning what they knew the best about, 91.7 percent knew that sweet food including sugar caused dental caries, and regarding the most incorrect idea, 31.6 percent believed that aging made tooth come out.
3. In regard to oral health attitude, the right answer rate was 7.33 out of 10. As to the best attitude, 87.1 percent felt that it made them unpleasant to go to bed without doing

toothbrushing, and concerning the worst case, 24.0 percent believed that teeth could be clean without using toothpaste.

4. As to oral health behavior, the right answer rate was 5.37 out of 10. Regarding the most common oral health behavior, 89.9 percent brushed their teeth before going to bed, and the least common one, 15.8 percent made a regular visit to dental institutes to examine their teeth.
5. Concerning self-evaluation of oral health, the right answer rate was 6.77 out of 10. 90.0 percent found themselves not to have a toothache, and regarding the worst case, 38.1 percent considered their oral health to be better than that of others of the same age group.